



# 저전력, 고성능 프로세서 IP로 최적의 SoC 설계환경 제공

텐실리카는 컴퓨러블 프로세서 기술 분야의 선도업체로 지난 97년 설립된 반도체 설계자(IP) 기업이다. 텐실리카는 사용하기 편리한 자동화 프로세서 설계 시스템과 관련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 제품인 다이아몬드 스탠더드 프로세서와 컴퓨러블 익스텐사 프로세서는 셋톱박스과 네트워크 프로토콜 프로세싱, 소비자전, 무선 통신 및 오디오·비디오 프로세싱과 같은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글 | 유승목 기자(chrisyoo@chips-par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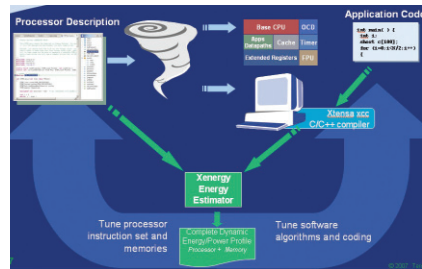
텐실리카의 스티브 로디(Steve Roddy) 마케팅 부사장

텐실리카의 다이아몬드 스탠더드 프로세서는 공간 효율적인 저전력 컨트롤러에서 오디오 프로세서 및 고성능 DSP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 2종씩 총 6개의 OTS(off-the-shelf) 통합 코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컨트롤러 부문은 108Mini·212GP, CPU는 232L·570T, DSP에 330HiFi·545CK 등으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스탠더드 프로세서는 휴대폰, 프린터 및 일반소비가전, 통신기기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용 IP로 각 부문별로 업계에서의 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LG전자와 휴대폰용 오디오 프로세서 코어 다이아몬드 스탠더드 330HiFi 오디오 엔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LG전자는 차세대 모바일 TV 칩셋 설계에 이 다이아몬드 스탠더드 330HiFi 오디오 엔진을 사용할 계획이다.

익스텐사 프로세서는 주로 하이엔드급 휴대폰, 디지털TV 등에 특화된 프로세서 IP로 하드웨어 구현 툴 지원과 구성가능성, 확장성 및 통합성의 특징을 제공한다.

텐실리카는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소비전력 절감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엑스에너지(Xenergy) 에스티메이터를 개발했다. 이는 익스텐사 프로세서와 다이아몬드 스탠더드 프로세서 사용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에스티메이터로 SOC 설계 사이클 초기 단계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엑스에너지 툴을 사용함으로써, 설계자들은 지능형 설계 트레이드오프(trade off)를 통해 프로세서 및 로컬 메모리 에너지의 조건을 최대 절반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엑스에너지 에스티메이터는 익스텐사 프로세서나 다이아몬드 스탠더드 프로세서의 각각 다른 명령을 위해 사이클 당 전력 소비 측정을 계산함으로써 동작한다. 엑스에너지는 휴대폰 및 PMP 등 휴대용



엑스에너지(Xenergy) 에스티메이터

배터리 구동식 기기 설계자뿐 만 아니라, 열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와 네트워크 기기와 관련된 복잡한 SOC 설계에 주로 사용된다.

텐실리카의 스티브 로디(Steve Roddy) 마케팅 부사장은 "모바일기기 및 휴대폰 등 무선이동통신분야에서 세계 우위의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텐실리카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자사의 제품을 통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히고 "특히 서울대, 한양대, KAIST, 부산대 등 반도체설계관련 학과에 아카데미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고객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설계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채널과 솔루션 협력 업체 발굴을 통해 시장 입지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C&P